

시금치 소레



미안해요. 조금 늦겠어요. 차가 많이 막히네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하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가 도로 쥐었다. 침대에 모로 누운 자세로 ‘천천히 오세요.’라고 답장을 보내고 몸을 둥글게 웅크렸다. 최대한 원에 가까운 자세를 만들면 손과 발이 비슷한 위치에 놓인다. 충전기에서 분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지근한 휴대폰을 핫팩 삼아, 차가운 발바닥에 갖다 대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수족냉증이 늘 말썽이었다.

얼음장 같던 발에 미약한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보일러를 올린 지 5분이 채 안 되었다. 발도 집도 데워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보호사가 늦는다고 해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냉기 도는 집 안으로 첫인상을 꺼낼 뻔했다.

이 모양이 되었어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나.

미하는 오른쪽 발바닥에 붙였던 휴대폰을 왼발로 옮기며 생각했다. 어차피 보호사도 훈훈한 분위기를 기대하며 찾아오

지는 앓을 것이다.

✓ 아주 오래전 우울증 진단을 받은 미하는 한 달 전 자살 시도를 했고, 자살 생존자라는 신분을 달고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나라에서는 오늘부터 보호사를 파견했다. 거절할 방법은 없었다.

자살 생존자 보호사 제도는 몇 해 전부터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호자가 없는 자살 생존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호사를 파견 보내는 것이 골자다. 병명과 정신 건강 상태에 따라 파견 기간은 다르지만 기본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이며, 보호사들은 그 기간 동안 생존자의 일상을 아이 돌보듯 돕고 변화를 체크한다. 미하의 경우에는 2개월간 보호사가 월수금에 집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퇴원할 때 받은 서류에 쓰여 있었다. 미하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별거 상태로 미국에 있는 그가 올 형편은 아니었다. 결국 서명을 했다.

✓ 미하가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는 몇몇 환자를 강의실에 불러 모았다. 그간 못 보았던 낯선 의사가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다. 죽으려던 사람에게 이런 교육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을 만큼 강의 내용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었다. 보호사 제도가 생겨난 배경과 함께, 운영된 후 자살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성과 보고가 주된 내용이었다. 너희들도 이 통계의 한 축이 되라는 일종의 협박인가? 지루한 통계를 보여 주는 그래프와 표가 이어졌다. 10분쯤 지나자 약 기운에 그나마 남아 있는 집중

력마저 흐트러졌다. 그때였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옵션’입니다.”

떨어진 고개를 들어 올린 이유는 자동차 영업 사원에게나 어울릴 만한 단어가 들려서였다. 옵션.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저희 정신 건강 의학 센터에서는 특정한 기억의 존망을 다루는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강의실의 모두가 의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극단적인 선택은 안타깝게도 재발률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사의 파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다면, 부정적 사고를 유발하는 기억만 선별해 제거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의 시냅스 일부를 차단하는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옵션인 거죠. 정확하게는 기억을 제거한다기 보다는 특정한 기억이 촉발하는 감정의 고리를 끊는다는 표현이 맞겠으나, 복잡한 의학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극단적 선택, 부정적 사고.

✓ 의사는 자살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뇌의 정보를 판독하는 특허권에 관한 자랑도 절반 쉬어가며 기술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억을 인위적으로 만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하여, 그것도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시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옵션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은 시술을 받고 나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니까요.”

“그럼 뭐 하러 기다려야 해요?”

가장 뒷줄에 앉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로 입을 열었다.

“원하는 사람 지금 당장 시술하면 되지, 보호사 같은 거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옵션이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이런 질문은 벌써 수차례 받아본 듯 의사는 부드럽게 응답했다.

“또 옵션을 선택해도 바로 시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의료진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억을 선별, 또 선별합니다.”

남자는 더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파견해 드리는 보호사들은 모두 옵션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옵션 이후에 새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을 곁에서 관찰하시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실에는 아까와 다른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모두 자신에게 옵션을 대입하는 장면을 계산하는 중이었으리라. 의사는 침묵이 충분히 흐르게 내버려 둔 뒤 이렇게 말하며 강의를 끝냈다.

“무엇이 인간적인지는 결국 자신이 정의 내리는 것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이정인입니다. 취미하 씨죠?”

도착한 보호사는 60세 남짓한, 자그만 체구의 여성이었다.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정인은 주민등록증과 보호사 면허증을 나란히 내밀어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다. 눈높이보다 조금 아래 반백의 단발머리가 있었다. 몸에 걸친, 굵게 짜인 니트는 단풍잎 색이었다. 만약 엄마가 있었다면 이 정도 나이대였겠지만 미하에게는 엄마도 이 연령대의 가족이나 지인도 없었다. 남편도 양친을 일찍 여윈 사람이었다. 어색했다. 앞으로 얼마나 어색한 시간을 견뎌야 할지도 까마득했다.

“여긴 참 따뜻하네요.”

정인의 안경에 김이 서렸다. 집이 적당히 데워진 모양이었다. 굵이 평평한 땅콩 같은 신발을 벗고서 정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가운이나 유니폼을 입지 않은 사람과 대면하는 것도 오랜만이였다. 정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으며 물었다.

“이른 추위래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하긴 뉴스 봐야 속이나 시끄럽죠. 저도 날씨는 앱으로만 봐요.”

정인은 벌써 며칠 이 집에 들락거린 사람처럼 말을 붙여 왔다. 나이 든 사람 특유의 오지랖일까, 아니면 불행한 감정을 지워 낸 이후의 가벼움일까. 미하는 그것부터 궁금해졌다.

안경을 모두 닦은 정인은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지부터 물었다.

“제가 잘 도착했다고 출석 도장을 찍어 보내야 해요.”

지각이라 아마 벌점이 쌓이겠지만 어쩔 수 없지요, 말을 보태며 정인은 액정에 떠오른 달력의 오늘 날짜에 체크 표시를 만들었다. ‘전송 중입니다.’라는 글씨와 함께 몇 초간 물결 표시가 흘렀다. 출석 체크? 생존 체크가 더 맞겠지. 미하는 그렇게 생각하며 냉장고를 향했다. 반강제적인 만남에 아무리 어색해도 손님은 손님이니 뭐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았다.

“주스라도 드릴까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사실 냉장고 안에 주스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마지막으로 열어 보았던 냉장고의 풍경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제 오후에 퇴원하고 돌아와서도 냉장고를 열어 볼 생각도 없었다. 약을 먹느라 마신 생수 한 병이 지난밤 섭취한 전부였다. 그래도 마실 거 뭐 하나는 있겠지 싶어 냉장고 문을 잡아당겼다.

문이 열리자마자 미하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냉장고를 당장

봉했다. 무언가 쉬었는지 썩었는지 가늠도 안 되는 냄새가 물컹 쏟아져 나와 온 거실로 파고들었다. 토할 것 같았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았다. 몸 안에서 주먹질이 올라오는 듯 속이 뒤틀리는데도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쏟아지지 않았다. 숨이 들지도 나지도 않았다. 몸 어디 한군데를 찢어서라도 공기를 통하게 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 아파트의 화장실은 구조상 창문이 없었다. 제 기능을 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환풍구만 있을 뿐. 그 생각까지 떠오르자 숨이 더 막혔다.

썩은 냄새가 마치 제 속에서 새는 것 같았다. 자신이 썩은 것 같았다. 깨끗이 죽지도 못한 반(半) 시체. 이 세상에서 제 몸뚱이 하나 치워 내지 못한 무능함. 순식간에 쏟아지는 자괴에 고인 눈물이 토사물 대신 변기 안으로 툭툭 떨어졌다.

잠시 후 등이 뜨끈해졌다. 헉헉거리며 미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정인이 곁에 쪼그려 앉아 등을 길게 쓸어 내리고 있었다. 정인은 말없이 팔을 부지런히 움직일 뿐이었다. 말을 붙여왔다 한들 대꾸할 처지도 아니었으나, 그 기계적인 동작이 뒤틀린 속을 진정시키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

보통의 호흡이라 불려도 좋을 감각이 더디게 찾아왔다.

토기가 가신 후에도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한 달 넘도록 비웠던 집이라 타일 바닥은 바짝 말라 있었다. 정인은 이대로 잠시 있으라면서 거실 소파에 있던 쿠션을 갖다 주었다. 미하는 그걸 허리에 받쳐 욕조를 벽 삼아 기

대고 정인이 냉장고를 정리하는 모습을 멍청하게 지켜보았다.

스스로 할 일을 누군가 대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우면서도 가까이 갈 엄두는 나지 않았다. 눈을 길게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정인의 위치가 달라졌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는 부지런히 썩은 것들을 비닐에 담고, 냉장고 안을 닦고, 그릇을 행구었다. 환기를 위해 열어 놓은 배란다 창을 통과해 온 찬 바람이 욕실까지 느껴졌다. 집과 몸이 다시 차가워졌지만 역겨운 냄새는 서서히 지워져 갔다. 서늘한 공기가 코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숨을 쉬고 있었다. 희미한 낙엽 냄새가 났다.

궂등으로만 들었던 퇴원 교육 후, 미하가 내린 보호사의 정의는 '감시자'였다. 죽지 못하게 지켜보는 사람. 좋게 말해 인구 1의 수호자. 추락할 뻔한 생산력을 지키는 사람. 어차피 버리려고 작정한 목숨이었으면서 처음 이 제도에 대해 들었을 때는 인권에 반하는 시스템이라는 반발심부터 들었다. 스스로 죽을 자유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 감시자가 지금 썩어 가는 것들로부터 미하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중이었다.

집안에 들어온 후 엉덩이 한 번 붙이지 못하고 힘만 뺐는데도 정인은 지친 기색을 비치지 않았다. 속이 좀 편해지자 미하는 욕실을 벗어났다. 뭘 대접해야 하지. 별다른 게 없는 걸 알면서도 찬장을 이리저리 여닫아 봤다.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 첫날이니까.”

환기한 집처럼 산뜻한 말투였다. ‘우리’라는 단어조차 전략적인 선택으로 들려왔지만.

정인이 찬장 구석에서 티백을 발견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루이보스 차의 상자에는 며칠 뒤의 유통기한이 찍혀 있었다. 날짜가 딱 좋네요. 정인이 화색을 띠며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다.

얼마 만에 튀어 오른 푸른 불꽃일까. 계산도 안 됐다. 마실 거죠? 묻는 정인에게 오히려 미하가 손님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티 타임을 가진 후 정인은 집안을 살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신입 사원은 나 홀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테니 자기는 없는 사람 치고 미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다. 말이 쉽지만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을 없는 존재로 대할 수는 없었다.

시호를 먼저 보내고 나서 미하와 태혁은 한동안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살았다. 하지만 태혁은 결코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있는 사람이고, 있는 상처였다. 태혁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질수록 상처는 그 사이에서 제 부피를 늘려갔다. 서로의 얼굴에서 죽은 일곱 살 아이의 눈이며 입술이 보였다. 배달 음식이 식다 못해 굳어가도록 식탁에 내버려 두었다. 식탁에 마주 앉는 일도 없어졌다. 차가운 음식이 정물처럼 놓인 식탁은 아무리 보아도 제사상 같았다.

태혁을 원망했다. 아이가 약하니 학교 가기 전에 체력이라도 기르게 하자고 보낸 태권도장이었는데, 시호는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복도에서 뛰다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다시 눈을 열지 못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원망의 대상이 모호했다. 가여운 아이를 탓할 수는 없었다. 슬픔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몇 군데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평이 가장 좋은 그 태권도장으로 아이를 보내자고 말했던 태혁 말고는, 그 도장의 이름이 새겨진 도복을 입은 시호의 첫날이 자랑스럽다며 기념사진까지 남겨 놓은 태혁 말고는, 그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만든 태혁 말고는.

어설피 건넨던 위로는 신경질로, 신경질은 분노로 깊어져 갔다. 몇 달 후, 미하는 이혼을 요구했다. 태혁은 서류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해외 발령 제안을 받았는데 같이 가자고, 이 공간을 떠나야 우리가 살 것 같다고. 미하는 이혼해 줄 생각이 없으면 혼자 가라고 했다. 살고 싶으면 너 혼자 살아, 난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자신은 썩어 문드러졌으며 이 집이 내 관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태혁은 혼자서 짐을 꾸렸다.

“2년 있다 올 거야.”

“.....”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

이제 유일하게 남은 식구를 배란다 바깥을 바라보며 등진 채로 떠나보냈다. 그래서 어떤 표정으로 태혁이 그런 말을 했는지 미하는 아직도 모른다. 그저 창밖에서 목련꽃 몇 송이가 흰 봉오리를 터뜨리던 모습만을 기억할 뿐이다. 비 한 번 내리면 금방 질 것들이. 떨어지고 밟히고 썩어 문드러질 것들이.

시호도 태혁도 완전히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다. 어찌할 수 없는 집만 빼고 모든 것을 버렸다. 시호의 물건도, 태혁의 물건도. 그래도 그들이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 될 수가 없었다. 배 속의 시호가 길게 다리를 뻗으며 배를 밀어내던 감각, 그 안에서 팔뚝대던 박자는 미하의 몸에 달라붙은 채로 떨어지지 않았다. 정작 그 심장의 주인은 꺼졌는데도.

죽음도 별거도 사람을 완전히 사라지게는 못했다. 미하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였다. 스스로를 지우는 것. 그리고 실패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수족냉증의 싸늘함을 다시 경험하지는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몸은 항상 우리의 필요보다 많은 것들을 기억했다.

“미하 씨는 먹기만 잘하면 돼요.”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할 것. 그것이 정인의 첫 번째 요구였다. 정인이 매 끼니를 만들어 줄 거라고 했다.

‘보호사님은 가사도우미가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는 일이 보호사의 기본 업무니까 요리하고 싶어

서 전달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애써 거절하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 물론 아니었다. 먹는 일도 귀찮았고 만드는 건 더더욱 고역이었다.

미하가 하루 동안 무얼 먹었고 약은 잘 챙겼는지가 정인에게 가장 중요한 보고 사항이라고 했다. 환자가 루틴을 갖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이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했다. 자기가 오지 않는 날은 그날의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적어 두었다가 다음 날 알려 달라고 했다. 병동만 빠져나온 보호 관찰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산책 겸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다. 뭘 골라 담아야 할지 막막했다. 딱히 입맛이 없었다. 뜬금없이 입덧 때 들은 조언이 생각났다. 뭔가 먹기 힘들고 입맛이 없을 땐 차고 시금치한 걸 먹으면 좋단. 빌어먹을 기억. 또 시호 생각에 젖을 뻔했다. 미하는 기억을 토하듯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뱉고서 카레와 미트볼 같은 레토르트 식품을 샀다.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사 두면 언젠가는 먹겠지 싶은 것들을.

“미하 씨는 무슨 채소 제일 좋아해요?”

그때 곁에서 정인이 물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까, 정인은 미하에게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부엌에 관련한 질문 서넛이 전부였다. 보호사로 왔으니만큼 환자의 히스토리는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미하가 고아로 자랐고, 늘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고, 사고로 아이를 잃었고, 남편과 별거 중이

라는 사실을. 좋아하는 채소는 그 히스토리에 포함되지 않은, 비교적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시금치요.”

카레 포장지에 인쇄된 시금치 그림을 보며 대답했다.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 후에는 즐겨 먹지 않았다. 태혁도 시호도 약속이라도 한 듯 시금치를 싫어했다. 시호는 이유식부터 시금치 조각은 기막히게 구분해 밀어냈다. 그 모습에 미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혁은 시금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드문 법이라며 괜히 상심하지 말라고 했다. 태혁은 미하의 걱정거리를 중이접기 하듯 절반, 아니, 그 반의반 정도로 접어 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도 시금치는 고등학교 가서나 먹었으니까. 태혁의 말을 듣고 나면 시호의 편식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그래도 몇 해 동안은 시호에게 세 젓가락 정도는 먹으라며 잔소리를 했다. 언제까지 이런 잔소리를 해야 할까, 이 잔소리가 끝나는 날은 있을까 태혁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던 기억이 났다. 이 잔소리 끝나면 다른 잔소리 생기겠지. 태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부모 되기 어려워, 점점 어려워지겠지? 습관처럼 말했다. 잔소리가 끝나는 날이 정말로 찾아올 줄 알았다면, 양육자라는 자격이 하루아침에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 말은 안 했을 것이다.

손에 든 3분 카레 상자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뚝뚝. 결국 젓

고 말했다. 눈물은 감추지도 못하게 굵게도 떨어졌다. 몸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는 버튼이 돌아난 것 같았다. 그 버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눌렸다. 그러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버튼은 없었다. 흔들리는 미하의 어깨를 정인이 가만히 끌어안았다. 홀극대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화장실에서의 그 손길로 정인은 몇 분간 미하를 다독였다. 울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다. 어깨의 요동이 작아질 무렵 정인이 낮낮하게 말했다.

“시금치가 잘못했네.”

✓ 눈물범벅이 된 와중에도 미하는 나중에 기억을 지워야 한다면 시금치에 대한 것부터 삭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시금치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으면 좋겠다고.

레스토랑 진열대를 떠나 채소 코너로 이동했다. 국 끓일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사 두겠다며 정인은 양파, 감자, 대파를 차례로 담았다. 오늘 잘못된 시금치는 생략이었다. 이어서 정육 코너에서 달걀과 포장된 고기도 골랐다. 미하의 생명을 연장할 식료품들이 차곡차곡 카트에 쌓였다.

보호사가 오는 기간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자살 생존자는 생활비에 쓰일 돈을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미하는 정인에게 일하는 동안 바우처를 대신 관리해 달라고 했다. 정인은 미하를 위해 매일 저녁 국이나 찌개 한 가지를 가득 끓여 놓고 퇴근했다. 정인이 없는 날도 미하가 언제든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밑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두었다. 이 집에서 정인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정인이 부엌일을 하는 동안 미하는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겹다. 걸레를 빨며 온수를 펄펄 썼다. 따뜻한 물에 얼었던 손을 적시면서 새카만 먼지가 흘러 나가는 걸레를 언제까지고 바라보았다. 까만 물이 점점 명도를 낮춰가면서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전 같으면 생각지도 않았을 일이다. 물 낭비, 시간 낭비. 어딘가를 닦는 시간보다 걸레를 빠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처음에는 완전히 새까맣던 땀물이 옅은 회색이 되었다가 맑은 물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자면 어쩐지 속이 편안해졌다. 미하가 아무리 느릿느릿 비효율적으로 움직여도 정인은 사소한 참견 한마디 보태지 않았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지켜보듯 그저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다른 보호사들은 만난 적 없어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인은 옵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생존자인 것이 분명했다. 정인은 매일 밝고 맑았다. 언제나 정인의 주변에는 가벼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미하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면 미하는 쉽게 짜증을 내기도 했고,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정인의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할 때도 있었다. 연장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만한데도 정인은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안온했다.

이 사람은 속도 없나, 참 나이브하네.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은 종종 했다. 처음엔 과거의 정인이 죽음을 시도한 이유가 궁금했지만, 이제는 정말 죽으려고 했을까가 궁금했다. 그런 종류의 그늘과는 상관없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해맑았다. 이게 옵션 시술의 위력인 걸까.

정인이 방문한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센터에서 중간 점검 전화가 왔다. 보호사에 대한 중간 평가와 함께 옵션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다. 미하는 솔직히 대답했다. 사람 참 해맑다고. 전화를 건 센터 직원은 기계적으로 웃으며 의견 감사하지만,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되겠느냐고 물었다. 통계를 위한 일인데, 점수가 나쁘면 보호사를 변경해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미하는 아주 잠깐 침묵을 지켰다가 70점을 선택했다. 정인이 싫은 건 아니었다. 옵션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역시 솔직한 대답이었다. 시커먼 갈레를 빠는 것처럼 마음도 빨면 속의 독이 모두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그 무게가 모두 빠져나가 버린 취미하가 누구일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알게 돼 버린 것은 알아서 두렵지만, 모르는 것 역시 몰라서 두려운 것이다. 두려움이 빠져나갈 때에도 용기는 필요하다.

“우리 집은 좋겠어요.”

금요일 오후, 땀땀이 마른 빨래를 함께 개며 미하가 말했다.

기온은 영하지만 별이 좋은 날이었다. 안에서 밖을 볼 땐 봄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별이었다. 오늘의 출석 체크를 한 정인은 결과 속이 다른 날이라고 했다.

“이 집이요? 왜?”

“챙겨 주는 사람이 둘이나 있잖아요. 치워 주고, 닦아 주고.”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정인은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소녀처럼 까르르 웃었다. 정인의 새로운 포지션은 미하 대신 웃어 주는 사람이었다. 웃음의 통역사라고 미하는 속으로 이름 붙였다. 미하는 이 집에서 웃을 수 없었다. 아직 웃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아직은. 웃기에는 이르다고 많은 기억이 미하를 붙들고 있었다.

미하는 무늬가 같은 양말을 짝지어 둥글게 겹쳐 감았다. 공처럼 말린 수면 양말들이 나비다리를 한 무릎 곁에 야트막한 언덕으로 쌓였다. 겨울 빨래의 절반은 수면 양말이다. 색깔은 하나같이 파스텔톤이었다. 꿈속에서나 나올 듯한 유니콘의 갈기 같은 색깔들.

“미하 씨는 양말도 예쁜 것만 신네.”

“수족냉증이 있어요. 발이 차면 괜히 속상해요. 잠도 안 오고.”

우울하다는 단어는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말로 보태면 우울이 배로 쌓이는 것 같았다.

“우리 지연이도 그랬는데. 이런 거 사다 줄 생각은 못 해 봤네요. 난 왜 이런 걸 몰랐지.”

“따님이예요?”

미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물었다.

“네. 하늘로 보냈지만요. 11년 전에. 의료 봉사 나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의대생이었던 스물둘, 남미 산악 지대에서 발을 헛디더 추락했다고 했다. 정인의 담담한 고백에 미하의 속이 툭 내려앉았다. 막 완성한 양말 공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미하는 얼른 그 양말을 붙잡았다.

이게 뭐야. 예고도 없이 이게 뭐야.

미하는 터지기 직전의 눈물을 겨우 붙들었다. 웃음은 어떻게든 삼킬 수 있지만 눈물은 그게 안 된다. 자신의 일이 아닌데, 정인의 일인데, 무언가가 목구멍에 걸렸다. 시큰한 코를 겨우 다독였다. 울지 마. 울지 마. *최미하*. 네 일이 아니잖아. 그래도 눈물이 기어코 눈꺼풀을 비집고 나왔다. 반면에 정인은 요동이 없었다. ‘옵션’을 선택했으니까, 딸아이와 연결된 슬픈 감정의 고리를 끊었을 테니까.

뭐지, 이 프로그램은. 일부러 이렇게 붙인 걸까.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을 영업하는 타이밍인가. 보호사가 찾아온 지도 벌써 한 달 반, 이제 슬슬 실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건가. 비슷한 사례를 보여 주며 너도 가벼워지라고 유혹하는 건가. 미하는 스웨터 소매로 눈꼬리를 훔쳤다.

“……안 우시네요.”

새 양말을 꿰며 일부러 내뱉듯 말했다. 정인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얇은 미소를 띠었다.

“가끔 우는걸요, 지금도.”

“……?”

“저한테도 시금치 버튼이 있거든요.”

미하는 고개를 들었다.

절대 울지 않아요. 옵션 시술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다. 그럼 시술이 소용없었다는 건가? 부작용인가? 동그랗게 뜬 눈으로 소리 없는 질문을 쏟아 내자 정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버튼은 병원이예요.”

“…….”

“어디서든 병원 간판만 보면 화가 났어요. 어디 아파서 진료를 보러 가서 가운 입은 의사를 보면 말할 것도 없고. 다 싫었어. 지연이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연이어야 하는데. 죽을 사람 살려 보자고 거기 간 건데, 좋은 일 하겠다고. 그런데 멀쩡한 사람 숨통만 끊어졌어. 나는 어떻게 살아.”

문장 끝에 힘이 실렸다. 늘 폴폴 날아갈 것만 같이 가볍던 목소리에 추가 매달렸다. 미하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추였다. 덩달아 눈물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가운 입은 사람 마주칠 때마다…… 왜 지연이가 아니지? 왜 아니지? 이 중에 하나는 지연이어야 하잖아. 의사들은 누

구든 풀도 보기 싫었어요. 자꾸만 없는 애 생각이 나니까.”

정인은 남은 빨래를 차곡차곡 접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죽으려고 했다가 눈을 떴는데, 다름 아닌 어디였겠어요.”

푸른 신호 아래 차가 달리는 8차선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이왕이면 커다란 차에 부딪히면 좋겠다고 믿어 본 적 없는 신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며, 정인은 의식을 놓았다. 영원히 농기를 바랐다. 의식이 매달려 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열었을 때 정인은 남편을 보고 눈물을 쏟았다. 그가 반가워서가 아니었다. 마치 기름종이를 덧댄 사진처럼 그의 얼굴에 지연이가 가만히 남아 있어서. 그것도 병원이라는 곳에서. 살아남아 버려서. 지연이가 이런 나를 질책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가 버린 우리 아기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몇 달 후, 두 번째 시도를 하고 다시 병원에 실려 왔다가 퇴원할 무렵 정신 건강 의학 센터 주치의가 찾아왔다. 일상이 힘들다면 옵션이라는 시술이 있다고. 두 번 이상의 자살 시도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기간이라고 했다. 정인은 크게 망설이지 않고 옵션을 선택했다.

미하는 예전에 지인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에 가 본 적이 있다. 새 이웃 초청 잔치,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다. 목사가 설교를 끝마치니 간증을 하는 차례였다. 중년의 여성이 원고를 들고

나와 이전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예수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가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살렸는지 회상하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도 나를 고통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고백하는 정인은 그들과는 달리 그리 고통스럽지도, 감격스럽지도 않아 보였다. 아픈 역사를 이토록 덤덤히 회상할 수 있는 것이 옵션의 덕이라면 그 효과는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았다.

“역시 옵션이 필요할까요.”

미하가 마지막 티셔츠를 꺼며 중얼거렸다.

“마감이 언제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알고 있다는 동질감이 자라나서일까, 조금은 편하게 말을 뱉고 말았다. 정인이 후후 웃었다.

“나는 영업 사원이 아니라 방해꾼이에요. 좋은 방해꾼.”

보호사로서의 정인의 임무는 ‘끼어들기’라고 했다. 물론 보호사 교육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명시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정인은 재활, 지지, 관찰, 보호 같은 항목들에 ‘방해’도 추가하고 싶다고 했다. 생존자가 우울이라는 깊은 우물에 빠져 혼자 가라앉지 않도록 끼어드는 방해꾼이 되는 것이 제 목표라며.

“어때요, 제가 조금은 방해가 되고 있나요?”

정인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해 수단은 집안일이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안일은 꼬리를 물고 나온다. 끝이 없다. 그

것을 차례대로 정인과 해치운다.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람과 한집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집안일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싶기도 했다.

출근 도장을 찍고 빨래를 걷고, 개고, 세탁기를 새로 돌리고 장을 보고 그게 마트였는지 시장이었는지 편의점이었는지도 기록한다. 집 안의 어디 어디를 청소했으며 점심과 저녁으로는 뭘 먹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방송을 보았고 어떤 인터넷 뉴스를 읽었는지도. 특별한 일 없이 집에서만 보내도 하루는 촌촌히 굴러갔다. 그 내용을 정인은 스마트폰에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퇴근하기 전 센터로 전송한다.

이런 게 그들의 연구에 무슨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이라기에 매일 이어가는 중이었다.

집안일에 매달려 하루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나면 손발에 깊이 박혀 있던 냉기가 녹았다. 사람 둘이 만든 먼지와 열기를 환기하기 위해 창을 열 때면 들어오는 찬바람은 차갑지만 동시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그 냉정한 온도를 마시고 나면 미하는 그날 하루의 눈물샘이 어는 것이라고 스스로 주문을 걸었다. 좋은 방해꾼이라고 생각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았다.

베란다 바닥 타일을 보다가, 욕실의 곰팡이 얼룩을 보다가, 누워서 꺼진 형광등을 멍하니 보다가도 맥락 없이 흐르던 눈물의 양이 조금씩 줄었다. 울다가도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의 불을 꺼야 했고, 취침 약을 먹어야 한다는 알람이 울리면 컵에 물을 따랐다. 세탁기가 다 돌아갔다는 땡땡땡 소리는 방해 중의 방해였다.

그러면 떨어진 눈물을 속 닦고 일어나 젖은 빨래를 탈탈 털어 건조대에 널었다. 일렬로 줄지은 화려한 수면 양말들은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보였다. 계절은 잘도 반복된다.

정인의 마지막 방문은 12월 25일이 될 예정이었다. 크리스마스였지만 보호사가 공휴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다. 무조건 월수금. 병동에 쉬는 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 저녁 식사는 자신이 만들고 싶다고 미하는 생각했다.

하늘이 깨끗한 크리스마스였다. 기온도 반짝 올라 영상이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못 됐지만 맑은 하늘 덕에 내내 미지근한 빛이 거실로 들락날락했다. 집 안이 포근했다.

정인이 출근하자 미하는 오늘 저녁은 직접 차리겠다고 선언했다. 정인은 조금 어리둥절해했지만 기대하겠다면 금세 함박웃었다.

미하가 만든 저녁은 플레이팅에 잔뜩 힘을 준 샌드위치와 샐러드였다. 치아바타 빵 사이에는 베이컨과 양송이버섯, 치즈, 그리고 시금치를, 샐러드에는 올리브와 방울토마토, 아보카도를 아낌없이 넣었다. 저녁이라기보다는 브런치에 가까운 메뉴였다.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정인은 어머 예뻐라, 감탄부터 터

뜨렸다. SNS 계정이 있었다면 사진이라도 찍어 올릴 기세였다.

“샌드위치에 나물이 들었네요.”

나물이라는 말에 미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소테라고 해요. 시금치 소테.”

소테는 센 불에 재빨리 볶는다는 뜻의 프랑스어다. 시금치는 이리저리 활용하기 좋고, 방금 불에서 막 건져 낸 따끈한 음식을 좋아하는 미하는 자취하던 시절 시금치 소테를 밀반찬 삼아 먹곤 했다.

뿌리를 다듬어 낸 파릇한 줄기를 행귀서, 기름 두른 팬에 볶아 조금 간만 살짝 하면 완성이었다. 만들기도 쉽고 맛있었다. 밥반찬으로 먹어도, 빵 사이에 치즈와 함께 끼워 먹어도 잘 어울렸다. 그저 불에 익혀서 숨이 죽고 온기만 품었을 뿐인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생각하곤 했다. 쉽디 쉬운 요리인데 정말이지 오랜만에 만들었다.

정인이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깨물었다.

“겨울엔 시금치랑 무가 제일 맛있죠. 추울수록 달달하지.”

“맞아요.”

두 달 전 시금치 그림을 앞에 두고 눈물을 펴펴 쏟던 그 사람은 오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언제 또다시 불쑥 나타날지 모르지만 자주는 아닐 거라는 예감이 어렴풋하게 들었다.

“보호사님,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든지요. 오늘이 아니면 이제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두 개예요.”

“좋아요.”

정인은 질문이 무엇이든 몇 개든 대답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저 말고 다른 생존자를 돌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미하 씨가 두 번째예요.”

“그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묻는 것이 실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미 말해 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다. 대답하고 아니고는 정인의 자유였다.

“그분은 옵션을 선택했어요.”

“네…….”

말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듯했다. 그분은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우울이 재발하지는 않았나요? 묻고 싶었지만 이내 질문이 애초에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 사고가 있었던 아니든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옵션은 상처 난 부분을 지울 뿐, 새로운 행복을 가져와 주는 도구는 아니다. 그건 미하도 이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었다.

“보호사님은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지우셨어요? 옵션을 선택하셨잖아요.”

이런 질문이 모순적일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도 미하는 고민했다. 망각한 것을 기억해 낼 수 있으면 망각이 아니었으므로. 하지만 의사는 기억 자체가 아니라, 기억과 연결된 감정의 고리만을 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게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기분일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니 어떤 질문이 가장 옳은 형태일지 역시 모르는 일이다. 제 말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미하는 대답을 기다렸다. 정인이 조금 느리게 입을 열었다.

“옵션 시술을 결정하면 담당 의료진이 뇌를 판독해 그중에 자살 사고를 일으키는 정보들을 선별하지요.”

퇴원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이다. 자살 생존자는 그렇게 추려진 것들 중 어떤 정보를 제거할지 의료진과 상담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나는 그 안에 있는 건 지우지 않았어요.”

“……네?”

지우지 않았다고? 옵션을 선택했다며?

“지울 수 없었어요. 그 두툼한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은 한 글자도 지울 수 없었어요.”

정인은 가끔 운다던 말에 꼭 어울리는 얼굴이 되어 있었다. 아직 옵션을 꺾지 않은 것 같은,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의 그런 표정이.

“다 그 아이 같은 거예요. 이 기억은 눈, 이 기억은 손가락

한 마디 한 마디, 이 기억은 무릎, 이 기억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

“지연을 더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만질 수 없는 기억이라고 해도. 조금도 말이야.”

흘러내린 눈물을 닦으려고 정인은 소매로 뺨을 눌렀다가 눈가를 휘며 웃어 보였다. 미하를 안심시키고 싶은 듯했다.

“그래서 난 거기에 없는 걸 지웠어요. 지연이 열 살 때, 학교 축제 빼먹은 거 때문에 크게 한 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을 지웠어. 두고두고 후회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애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화풀이를 거기에 하고 말았던 거라.”

기억을 지웠다고는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억 자체는 남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모니터를 통해 보는 흑백 이미지처럼 거리감이 생겼다고 했다. 더 이상 그 기억의 주체가 내가 아닌 기분. 그 장면을 이해는 하지만, 감정의 동요는 사라진다고. 시술을 받은 이후에는 ‘기억’보다는 ‘정보’라는 단어에 더 적합해진다고 정인은 말했다.

“비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고작 내 잘못 지우기.”

정인은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남김없이 먹어 주었다. 접시에 떨어진 시금치의 자투리 이파리까지 깨끗이. 빈 접시를 치우며 시계를 보니 6시 15분이었다. 또 늦어 버렸네, 중얼거리며

정인은 오늘의 일지를 센터로 전송했다. 저녁은 생존자가 직접 만들어 주었고, 시금치 소테 샌드위치였으며, 맛있었고 나도 나중에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졌다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 같은 리포트를 보냈다.

전송이 모두 완료되자 정인은 그간 와이파이가 잘 켜지며 얼굴 모든 주름에 웃음을 가득 담아 미하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미하는 인사 대신 정인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처음엔 조금 어설픔게 팔을 들렀다가 이내 힘을 주어서 꼭 끌어안았다. 정인은 청얼대는 아이를 달래듯 미하의 등을 길게 쓸어 주었다. 가슴속에 웅어리진 무언가의 밀도가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감각이라고 미하는 생각했다.

정인이 떠나고 미하는 일자리를 구했다. 센터에서는 생존자가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일자리 연결도 돕고 있는데, 대단한 일들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나 골라 사회화를 시작해야 한다.

미하는 결혼 전 사보 디자인을 했던 경력으로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커다랗고 눈에 띄는 글씨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뽐내 주는 작업을 한다. 하던 일에 비하면 많이 단순했지만 적성에는 잘 맞았다.

저녁에 퇴근하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나 휴일이 되면 정인을 떠올렸다.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 정인이 만들어 주던 미역국, 콩치조림, 연근 튀김 같은 것들도 생각났다. 마른 빨래 더미에

서 양말을 골라 개킬 때면 얼굴도 모르는 지연이라는 아이를 상상했다. 정인을 닮았을 그 아이를. 어쩌면 시호와 같은 곳에 있을지도 모를. 아니, 같은 곳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시호의 배가 아프면 지연이 봐줄 것이다.

미하는 어느 날 아침 문득, 태혁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시차 계산을 해보았다. 샌프란시스코. 한국보다 열여섯 시간이 느렸다. 여기는 토요일 아침 9시이니 거기는 금요일 오후 5시일 것이다. 동시(同時)를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라니 재미있었다.

미하는 침대에 모로 누워 휴대폰의 통화 목록을 열었다.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계속 무시해 온 그 번호가 태혁의 해외 번호이겠거니, 짐작은 했다. 낯선 그 번호를 길게 눌렀다. 처음 들어보는 리듬으로 몇 번 신호가 흐르더니 한동안 잊으려 했던 목소리가 들렸다. 잊으려 했으나 잊은 적은 없던.

“미하야?”

다짜고짜 묻는 저쪽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그득 묻어 있었다. 어떻게 잡음도 하나 없을까 싶었다.

“……뭐 해?”

거의 1년 만에 듣는 목소리면서 미하는 바로 어제 통화했던 사람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꽤 뻔뻔하게.

“나야 일하지. 뭐.”

“그렇구나. 방해되면 끊을게.”

“아냐! 안 바빠. 하나도.”

궁금한 게 산더미 같을 텐데 그가 하고 싶은 말들을 겨우겨우 참고 있는 게 이쪽까지 느껴졌다. 많은 질문을 뒤로했을 태력이 물었다.

“넌 뭐해. 어די야?”

“미래입니다. 그쪽에서 열여섯 시간 미래.”

그렇게 대답해 놓고 미하는 혼자서 작게 웃고 말았다. 웃고 나서야 조금 놀랐다. 아무 생각도 않고 웃어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태혁도 휴대폰 너머에서 덩달아 웃었다. 이렇게 웃게 되는구나. 비 온 뒤 바닥에 맺힌 커다란 물웅덩이 하나를 훌쩍 뛰어넘듯. 앞으로도 웅덩이는 또 나오겠지만.

작년 봄에 떠난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살 시도도, 보호사의 돌봄을 받은 나날도,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시간도. 미하에게도 벌써 까마득한 과거가 된 것 같았다.

이번엔 미하가 물었다.

“추워? 거기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국만큼은 아니야.”

“여긴 또 한파 기록 갱신했어.”

“너 발 시리면 힘들겠네.”

“응, 죽겠어, 아주.”

죽겠다는 말도 이렇게 자연스레 나올 줄이야.

오랫동안 이리저리 피했던 말이었다. 한 존재의 완전한 소멸

과, 다른 존재의 연장된 생이 어쩔 수 없이 동시에 떠올라 버려서. 그래도 앞으로는 걸려 넘어지지도 물러나지도 앓기로 했다.

“여보, 기억나? 내가 시호 다 큰 거 같다고 했던 거.”

오랜만에 입에 담는 이름이었다. 지금이라면 눈물샘을 붙잡은 채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를 재워 놓고 나란히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하던 그때처럼. 열여섯 시간을 사이에 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왜, 아기들 누우면 자기 발 갖고 놀잖아. 다리도 짧으니까 붙잡기도 쉽고.”

“응, 기억난다.”

“근데 언제부턴가 시호가 누워도 발을 안 갖고 논다고. 다리도 길어지고 키도 쪽쪽 크고, 좋긴 좋은데 정말 다 키워 버린 거 같아서 뭔가 섭섭하다고.”

“그 팽이 장난감, 크리스마스 선물 줬던 날.”

“맞아. 그날.”

세 사람이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였다.

“내가 시호에게 많이 의지했던 거 같아. 키운다는 핑계로.”

“.....”

“부모라고 다 어른은 아닌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의지하는 데 애 어른이 어딴어.”

“그런가.”

“당연하지.”

태혁은 미하가 무슨 말을 해도 편을 들어줄 기세였다. 시금치를 뺀 채 냈던 시호의 편을 들어주었을 때처럼. 그래서 용기 내 말할 수 있었다.

“우리 시호는 대단했어. 잘 먹고 잘 크고 잘 놀았어. 매일 유치원도 가고.”

“응.”

“수족구도 잘 이겨 내고.”

“응.”

“그러니까 태권도 대회도 많이 나갔을 거야.”

“…….”

“띠도 색깔별로 다 뒀을 거야.”

“……응.”

“그치?”

“그럼.”

“시호를 알아서 좋았어. 고마웠어.”

“나도.”

“그치?”

“응.”

“정말로.”

응. 응. 나도. 나도. 끝없는 대답을 들으며 미하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발가락이 손에 닿았다. 시호의 작은 발바닥에 제 손바닥을 갖다 대 보았던 첫날이 생각났다. 손바닥보다 훨씬 작

은 발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던 체온이. 기억에서 언제까지고 저물지 않을 작은 온기가.

월요일 아침 미하는 센터에서 마지막 만족도 조사 전화를 받았다. 상담 직원이 점수를 물었을 때 미하는 숫자를 말하는 대신 저도 모르게 그분이 벌써 보고 싶다고 해 버렸다. 상담사가 작게 웃었다. 그래도 점수는 수치로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100이란 숫자는 어쩐지 비현실적이고 더 이상의 여지가 없는 완성형의 느낌이라 미하는 고심 끝에 95점이라고 말했다. 옵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 중이라고 했다. 진심이었다.

아마도 영원히 옵션의 가능성을 생각하겠지만 결국 선택에는 못 이룰 것 같아. 전화를 끊으며 그런 마음이 들었다.